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동의의 병목: AI 인프라가 표를 얻는 값 — 중간선거 이후 첫 주, 서울의 7일 연속 매도와 메모리 슈퍼사이클

The Consent Bottleneck: What AI Infrastructure Now Pays for Permission — The First Week After the Midterms, Seven Straight Days of Foreign Selling in Seoul, and the Memory Supercycle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7일부터 10일 아침까지 이어진 글로벌 시장·산업·교육 현장의 변화를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HR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거래소·시장 데이터, 학술 문헌,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고 추정과 확정 실적을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글보다 도표가 먼저 말하고, 텍스트는 그 해설을 돕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10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0. (화) Tuesday
권호 Volume	VOL. 2026-11-10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07 ~ 11. 10 (직전 3일 + 당일 조간)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2.74%
나스닥 11-09 종가 25,253.14
7월 30일 이후 최대 일간 상승

-0.81%
코스피 5,018.85 · 3일 연속 하락
외국인 7거래일 누적 13.5조 순매도

$4,148
금 온스당 +1.8% · 브렌트 $97
주간 -17%, WTI는 $87까지 하락

37%
AI로 EBIT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 비중
(McKinsey 2026, 작년과 동일)

한 주의 결론: 자본은 돌아왔지만, 허가는 아직 없다

11월 9일 뉴욕의 반등은 'AI가 끝나지 않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규제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유예였다

+2.74%
나스닥 25,253.14 (11-09). 7월 30일 이후 최대 일간 상승. S&P 500 +2.35% 7,549.94, 다우 +2.15% 52,389.75

19.92
VIX 22.31% 급락. 공포는 진정됐지만 지수는 10월 고점 대비 낮은 자리 — 나스닥100 주간 -4.7%, 고점 대비 -14%

4.86%
미 10년물, 주간 13bp 하락. 유가 급락이 물가 기대를 눌렀고, 금리는 'AI 자금 경쟁'의 가격표가 됐다

13.5조
외국인 코스피 7거래일 누적 순매도. 11-09 하루 6,930억, 기관은 7,204억 순매수로 방어

1. 시장: 반등의 정체는 '밸류에이션 재계산'이지 '리스크 소멸'이 아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간 뒤, 시장은 사흘 만에 나스닥 -5.56%(19개월 최악)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11-06과 11-09 반등으로 낙폭 일부를 되돌렸지만, 나스닥100은 여전히 10월 고점 대비 14% 아래입니다. 이번 반등을 이끈 것은 AI 기업의 실적 개선이 아니라 **유가 급락(-17%, 브렌트 $97)**과 **연준 금리 인상 우려의 일시 후퇴**였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4.2%로 4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올랐고 리더는 빠졌습니다. 이 조합은 '위험 선호의 복원'이 아니라 '리스크의 재배치'로 읽어야 합니다.

2. 서울: 환율이 주가보다 먼저 말한다

코스피는 5,018.85로 2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달러는 9.5원 내린 1,34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았는데 환율은 내렸습니다.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네고)과 당국의 미세조정이 만든 역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3~2026년 원화가치와 외국인 순매수의 상관계수는 0.46으로, 2015~2019년 반도체 주가(0.71) 중심 구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의 함수가 경상수지에서 자본 흐름으로 바뀐 것**이 올해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 변화입니다.

3. 공급: 메모리가 '1조 달러 클럽'을 만들었다

DRAM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Counterpoint)했고 삼성전자는 38% 점유율을 되찾았습니다. 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5년 장기계약이 생산능력의 60~70%를 잠그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요청으로 3D DRAM 진입을 검토합니다. 병목이 '칩 설계'에서 '메모리·패키징·전력'으로 이동했습니다.

4. 사람: 신입의 사다리가 먼저 사라진다

미국 10월 고용은 +16만5천 명, 실업률 4.1%로 견조했습니다. 그러나 초급 일자리는 다릅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초급 고용은 미국에서 16% 줄었고, 국내 기업 55%는 정기공채 없이 수시채용만 계획합니다. 취준생 77%는 AI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공식 평가하는 기업은 20%입니다(한경협, 11-10).

5. 교육: 도입에서 '증거'로 넘어간 해

국내는 대전교육청의 '1인 1 AI 튜터'와 교육감 직속 컨트롤타워, 교사가 대화를 관리하는 학생챗이 나왔습니다. 해외 실증은 더 냉정합니다. 18개 중학교 2년 RCT에서 칸미고는 학기당 1.3백분위 상승에 그쳤고, 2,379명 대학 RCT에서는 통합 AI 튜터가 최종 성적을 0.37SD 낮췄습니다. **관문은 접근성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11.10 미국 10월 CPI
유가발 물가 완화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예상을 웃돌면 12월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난다.

11.17 엔비디아 실적 · 11.18 의회 브리핑
키퍼슨 리스크가 지수 리스크로 번지는지 판가름나는 한 주. 4.5조 달러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험대에 선다.

12.09 FOMC
동결이든 인상이든, AI 인프라 자금조달 비용의 기준선이 여기서 정해진다.

한 문장 결론 AI의 다음 병목은 전기가 아니라 **동의**이며, 그 동의를 값싸게 확보하는 기업·지역·학교가 2027년의 원가 우위를 가져간다. 콘데리는 이 변화를 '설명 가능한 실행'으로 번역해 지방·학교·중소기업 현장에서 먼저 검증한다.

Executive Summary: The Consent Bottleneck

Capital returned on 9 November; permission did not. What changed is the price of building, not the case for AI.

Markets: a rally that rotated risk rather than removed it

The Nasdaq rose 2.74% to 25,253.14 on 9 November, its best day since 30 July, with the S&P 500 up 2.35% to 7,549.94 and the Dow up 2.15% to 52,389.75. The VIX fell 22.31% to 19.92. Yet the rally came from a 17% weekly slide in Brent to about $97 and a pause in rate-hike pricing, not from AI earnings. Nvidia fell 4.2% to its lowest since 7 April. The index rose while its leader fell: capital rotated, it did not recover its conviction.

Korea: FX now trades the capital account, not the trade account

The KOSPI closed at 5,018.85, down 0.81% and its lowest since 2 February, while the won strengthened 9.5 to 1,347.1 per dollar despite a seventh straight session of foreign net selling (cumulative 13.5 trillion won). Exporters' dollar conversion absorbed the outfl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n and foreign equity flows reached 0.46 for 2023-2026, versus 0.71 between the won and semiconductor shares in 2015-2019. For Korean exporters and startups, the currency is now a function of global AI allocation.

Supply: memory became the tollgate

DRAM revenue grew 369% year on year in Q3, Samsung regained 38% share, and SK hynix and Micron joined the trillion-dollar club. Five-year contracts now cover 60-70% of capacity. TSMC is weighing 3D DRAM at Nvidia's request while advanced-packaging capex approaches $28 billion. The bottleneck moved from design to memory, packaging and power.

People and learning: the entry rung is what breaks first

US payrolls rose 165,000 with unemployment at 4.1%, yet entry-level hiring in AI-exposed occupations fell 16%. In Korea, 55% of firms plan rolling hiring only. 77% of job seekers call AI skills important; just 20% of firms formally assess them. In education, the two-year Khanmigo trial gained 1.3 percentile points per term, and a 2,379-student trial found course-integrated AI tutoring cut final grades by 0.37 SD. Access is not participation.

10 Nov: US October CPI

The first test of whether cheaper crude actually lowers the inflation path. A hot print revives December hike pricing and re-prices AI capex.

17-18 Nov: Nvidia earnings and Congress

Q3 results followed by a closed-door briefing. Governance, not guidance, is the variable that can move the whole AI complex.

9 Dec: FOMC

Whether the policy rate holds or rises sets the discount rate for every data-centre project now waiting on financing.

$2T+
market value erased in the 5 Nov tech rout

-5.56%
Nasdaq on 5 Nov — worst in 19 months

63%
opposition to local data centres (Economist/YouGov)

409
US county moratoriums considered in eight months

Bottom line The binding constraint on AI in 2027 is social permission — at the county, the campus and the classroom. Firms that can convert consent into capacity at low cost will own the next cost curve. CONDERI tests that thesis where it is cheapest to prove: regional schools, local firms, and public procurement.

자본은 인프라로, 애플리케이션은 증거로

11월 첫 9일간 AI 스타트업 29건·100억 달러 — 라운드의 절반이 '운영 레이어'에 몰렸다

I 창업·스타트업 동향 VENTURE & FUNDING

라운드의 무게중심: 모델 → 운영 레이어

11월 1~9일 집계된 AI 스타트업 라운드는 29건, 100억 달러입니다(중간값 3,500만 달러). 금액 기준 상위는 파운데이션 모델 51억 달러(2건), AI 로보틱스 17억 달러(6건), AI 인프라 13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건은 Thinking Machines Lab의 **50억 달러 시드(기업가치 400억 달러, 11-06)**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신호는 '운영 레이어'의 조달입니다 — 기업이 자체 모델을 훈련·배포·운영하도록 돕는 Applied Compute는 **3억5,000만 달러(기업가치 32억5,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18개월 만에 연환산 매출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에이전트가 만든 새 카테고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덕션 장애를 진단·해결하는 Traversal은 1억2,000만 달러 Series B(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에이전트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Sentra는 1억5,000만 달러 전략 투자를 받았습니다. AI가 '기능'에서 '동료'로 넘어갈수록, 그 동료의 권한·장애·감사를 다루는 회사가 투자받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라운드

11-06	**Thinking Machines Lab**	50억 달러 시드 · 400억 달러
11-09	**Nominal**	2억4,000만 달러 Series C · 30억 달러 (8개월 만에 3배)
11-02	**Applied Compute**	3억5,000만 달러 · 32억5,000만 달러
11-05	**Cyera**	8억 달러 · 200억 달러 (데이터 보안)
11-03	**Traversal**	1억2,000만 달러 · 10억 달러
11-05	**Kalepa**	7,500만 달러 · 4억7,000만 달러 (보험 인수)

출처: AI Funding Roundup(2026-11-09 갱신), AlleyWatch 11-09, TechCrunch 11-09. 금액은 회사·투자자 발표 기준.

한국: 엔비디아가 서울에서 국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다

11월 9일 과기정통부·엔비디아는 코엑스에서 'MSIT-NVIDIA AI 스타트업 파트너십 포럼'을 열고 20여 개 국내 스타트업을 만났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터커넥트 기업 **포인트투테크놀로지** 투자를 발표하고,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리얼월드·업스테이지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인셉션 회원사는 1,000곳을 넘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 **모델·피지컬 AI·AI 인프라·AI 반도체**, 즉 '응용 서비스'가 아니라 'AI를 돌리는 층'입니다.

정책: '모두의 창업' 2차 규모 2배, 그러나 관문은 집행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내년 초까지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11-06). 중소기업 AI 확산허브 법적 근거도 추진 중입니다(11-02 발의). 동시에 올해 정책자금 7조7,933억 원 가운데 동일 IP 중복신청 9,117건을 적발해 760건·3,226억 원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자금의 양보다 배분의 정확도**가 내년 창업 생태계의 변수입니다.

왜 '운영 레이어'인가

기업이 모델을 '사는' 대신 '직접 돌리는' 쪽을 택하면서 훈련·배포·비용 관리 도구 수요가 커졌습니다. Applied Compute의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쇼피파이·도어대시까지 넓어졌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진입노

투자는 모델·피지컬 AI·인프라·반도체에 먼저 들어옵니다. 서비스형 AI가 라운드를 받으려면 기능 소개가 아니라 고객이 남긴 사용 로그를 앞세워야 합니다.

실행 시사점 투자 논리의 축이 '모델 성능'에서 '운영 증거'로 이동했습니다. 창업가는 성능표 대신 **도입 후 90일의 사용 로그·원가 절감·검증 통과율**을 지표로 제시해야 하고, 투자자는 그 지표를 라운드의 가격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에는 인프라 레이어 협력이 가장 빠른 진입로입니다.

병목이 설계에서 메모리·패키징으로 옮겨갔다

TSMC의 3D DRAM 검토, 5년 계약이 잠근 생산능력,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II 기술·AI 산업 TECHNOLOGY & SEMICONDUCTOR

TSMC, 엔비디아 요청으로 3D DRAM 검토 — 공급자 3사가 4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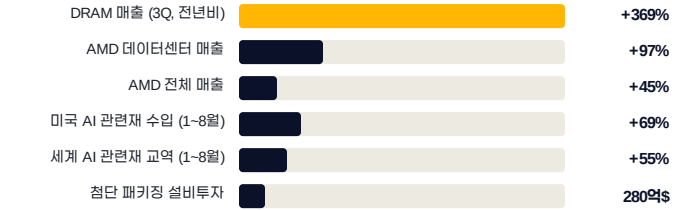
더 인포메이션은 11월 6일 TSMC가 최대 고객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3D DRAM 생산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팹 건설과 기존 팹 인수·전환이 모두 검토 대상이며, 첨단 패키징을 총괄하는 쉬궈진 부사장이 이끕니다. TSMC는 "항상 본업에 집중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방향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10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차세대 커스텀 HBM의 베이스 다이를 TSMC 3나노로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직과 메모리의 접점에서 발언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더 이상 HBM에 머물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1년 사이 두 배가 됐고, 마이크론은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 HBM 물량이 완판됐고, SK하이닉스는 DRAM·HBM이 2029년까지 사실상 매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5년 장기계약에 생산능력의 최대 70%를 배정하려 합니다. **계약이 길어질수록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줄고, 진입장벽은 높아집니다.**

새 병목은 **패키징**입니다. 2026년 첨단 패키징 설비투자는 약 280억 달러로, 매출 기준으로도 처음 전통 패키징을 앞지를 전망입니다(Yole). 엔비디아는 ASE 계열 SPIL의 CoWoS 증설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것으로 전해졌고, AMD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파워테크와 브로드컴은 싱가포르에 4억 달러 규모 합작사를 세웁니다. 칩을 만드는 능력보다 **칩을 붙이고 식히는 능력**이 병목이 된 해입니다.

2026년 AI 밸류체인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설비투자는 10억 달러)



출처: Counterpoint(DRAM 3Q), AMD 3Q 실적, The Economist·WTO 분류(무역), Reuters·Yole(패키징).

AMD: 데이터센터가 회사의 절반을 넘었다

3분기 매출 134억 달러(+45%), 데이터센터 85억 달러(+97%), 4분기 가이던스 약 170억 달러. 삼성 테일러 팹2의 2나노 물량은 AMD의 HBM 베이스 다이에 전량 배정됐습니다. GPU 단일 공급 구조가 '가속기 + 커스텀 HBM + 패키징'의 다자 구조로 재편되는 중입니다.

서울: 엔비디아 AI 데이 코엑스 (11-09~10)

약 2,000명의 개발자·연구자가 참석하고 20개 파트너사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공급자가 아니라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로 무대에 섭니다 — 삼성은 PhysicsNeMo로 유체·열·구조 해석을 단축하고, SK하이닉스는 CUDA-X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가속합니다. LG전자는 Isaac GR00T 기반 로봇 학습을 공장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합니다. 인텔도 11-12 같은 장소에서 AI 서밋 서울을 엽니다.

2배
메모리 가격, 1년 사이

60~70%
5년 장기계약이 잠근 생산능력 비중

2029
SK하이닉스 DRAM·HBM 사실상 매진 시점

$28B
2026년 첨단 패키징 설비투자

판단 TSMC의 3D DRAM 검토는 2027년 공급 지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팹 형태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고객 인증과 양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다만 **가격 협상 구조**는 바뀝니다. 로직-메모리 접점의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한국 메모리가 누리는 가격 결정력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유가가 금리를 눌렀고, 금리가 AI의 가격표가 됐다

미국 10월 고용은 예상을 두 배 웃돌았지만, 시장을 움직인 것은 브렌트 -17%와 10년물 4.86%였다

III 거시경제·금융 MACRO & MARKETS

고용은 강했다 — 문제는 '어떤 고용'인가

11월 6일 발표된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은 +16만5,000명으로 예상(6만5,000명)의 두 배를 웃돌았고,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렸습니다. 8·9월 고용은 합계 8만4,000명 상향됐고, 최근 3개월 평균은 13만7,000명입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38.00달러(+3.1% YoY)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를 여전히 밑돕니다. 업종별로는 전문·사업서비스 +7만, 의료 +4만2,000, 운송·창고 +2만5,000, 제조업 +1만9,000이었습니다. 단시간 근로(경제적 이유)는 33만9,000명 늘어 480만 명, 장기실업자는 200만 명(전체 실업자의 27.6%)입니다.

시장의 해석은 '연준이 더 오래 긴축한다'였습니다. 12월 9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유가가 무너지며 물가 기대가 꺾였고, 10년물은 주간 13bp 내린 4.86%로 마감했습니다. **AI 인프라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선이 내려온 것**은 하이퍼스케일러에게는 숨통이고, 채권시장에는 '자금 경쟁 완화'의 신호입니다.

다만 이 완화는 취약합니다. 11월 10일 10월 CPI가 예상을 웃돌거나 코어위브 등 AI 기업의 실적에서 수익성 우려가 드러나면 증시 조정과 원화 약세가 다시 겹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연말 원/달러를 1,300원 초반, 신한투자증권은 1,400원 초반으로 봅니다. 전망의 폭 자체가 넓다는 것은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자본 흐름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게 이 국면은 양면입니다. AI 관련 수출은 늘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환율이 흔들리고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출기업의 네고 타이밍이 분기 실적을 가르고, 수입 원자재를 쓰는 중소기업은 환율 방어 없이 원가를 맞춥니다. **환율을 '거시 지표'가 아니라 '조달 비용'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다시 '인상'인가. 9월 CPI는 3.7%, 임금 상승률은 3.1%였습니다. 유가발 물가 완화는 공급 충격의 소멸이지 수요의 진정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구조적으로 높은 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고 미국 주식을 중립으로 낮추고 국채를 늘렸습니다. 10년물 4.86%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리가 1%p 오르면 장기 성장주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IRR이 함께 내려갑니다. 기업 재무담당자에게 이번 주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 조달 비용을 '금리 × 유가 × 정치'의 3변수로 보고, 동결·인상 두 시나리오로 현금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11월 9일 자산 가격

자산	종가·수준	변화
나스닥	25,253.14	+2.74%
S&P 500	7,549.94	+2.35%
다우	52,389.75	+2.15%
VIX	19.92	-22.31%
미 10년물	4.86%	-13bp (주간)
브렌트	$97	-17% (주간)
WTI	$87	-5% (당일)
금	$4,148	+1.8%
비트코인	$74,800	-1.1% (5주 연속↓)
원/달러	1,347.1	-9.5원
코스피	5,018.85	-0.81%

출처: CNBC·Morningstar·Business Times·CoinDesk·연합뉴스 종합.

유가: 전쟁 프리미엄의 청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타격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 브렌트는 주간 17% 급락해 $97, WTI는 $87이 됐습니다.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피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타격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지만, 시장은 '공급 차질의 최악'을 먼저 지웠습니다. 물가 기대가 내려가면서 위험자산이 반등한 전형적 '유가발 금리 완화' 국면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분리

같은 위험 회피 국면에서 금은 +1.8%(주간 +5%)로 방어자산의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은 5주 연속 하락(-13%)하며 200일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동성 민감 자산과 '담보 자산'의 구분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AI 조정 국면에서 자금은 '성장 서사'가 아니라 '회수 가능한 담보'로 이동합니다.

신입의 사다리가 먼저 사라진다

AI가 기초 과업을 가져가면서, 기업은 '경험 있는 신입'을 찾고 청년은 '경험할 자리'를 찾는다

IV 경영·HR·인재 MANAGEMENT & TALENT

인식의 간극: 77% 대 20%

한국경제인협회가 11월 10일 발표한 조사(취준생 500명·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200곳)에서 취준생 **77.0%**가 "취업에 AI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입 채용에서 AI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기업은 **39.0%**, 이를 **공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20.0%**였습니다(일부 직무만 16.0%). 요구 수준도 엇갈립니다. 취준생 54.8%는 '결과물 검증·수정' 또는 '업무방식 재설계' 수준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그 수준을 신입 최소 기대치로 꼽은 기업은 18.0%뿐이었습니다. 기업 67.5%는 '기초 활용·과업 적용'을 최소선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기업 82.5%는 3년 내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향후 중요 역량으로 데이터 해석(73.9점), 문제정의·해결(73.2점), 비판적 사고·판단(72.5점)이 꼽혔습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전공·직무 연계(36.3%)와 문제해결(35.7%)입니다. 도구 교육이 아니라 **판단의 훈련**입니다.

직장인 인식도 같은 방향입니다. 직장인 200명 설문에서 **47.2%**가 AI 확산이 신입·주니어 채용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답했고, 향후 역할 변화가 가장 큰 직급으로 실무자(사원·대리)를 꼽은 응답이 **42.1%**였습니다. 중간관리자는 20.1%, 임원은 5.7%에 그쳤습니다. 현장의 변화는 이미 '일하는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 개발자는 코드 작성자에서 검증·통합자로, 기획자는 초안 작성자에서 문제 정의자로 이동합니다.

초급 고용의 3개 지표

-16%
미국 AI 고노출 직종의 초급 고용 감소 (같은 직종 경력직은 증가)

55%
정기공채 없이 수시채용만 계획하는 기업 (300인 미만 74%)

28%
대기업 대졸 신입 중 '중고 신입' 비중

출처: 글로벌인재포럼 2026(11-05),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용.

첫 일자리의 역설

기업은 '준비된 사람'을 원하고, 청년은 취업해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 인턴(미래내일 일경험) 경쟁률은 평균 6:1, IT 직무는 10:1을 넘고 참여자의 약 60%가 재학생입니다. 네이버의 20대 직원 비중은 2023년 21.3%에서 2025년 17.0%로, 카카오는 25.5%에서 15.7%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로 최근 4년간 정보서비스업 청년 취업자는 31.4% 감소했습니다.

직무의 재설계: '수행'을 평가하는 제도

신입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안 작성이 아니라 초안의 비교·검증·최종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채용도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실제 과업의 수행 기록**을 봐야 합니다. 문제 정의 → AI 활용 → 검증 → 의사결정의 4단계를 남기는 포트폴리오가 학력·자격보다 강한 신호가 됩니다. 기업은 '교육'을 채용 전제에서 채용 이후 설계로 옮겨야 합니다.

73.9점
기업이 꼽은 최중요 역량 — 데이터 해석

6 : 1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경쟁률 (IT 10:1)

31.4%
한은, 정보서비스업 청년 취업 감소(4년)

82.5%
3년 내 AI 역량 요구가 높아진다고 본 기업

콘데리 관점 이 간극이 곧 시장입니다. 학교가 '판단'을 가르치고 기업이 '수행 기록'을 요구하는 사이에서, 검증 가능한 실무 역량 증명(특허 기반 과업 수행 기록)은 채용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콘데리는 이 언어를 지방 학교·중소기업에서 먼저 표준화합니다.

학교가 AI를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

대전의 1인 1 AI 튜터, 교사가 관리하는 학생챗, 통폐합 학교의 원격 학습 — 도입의 단위가 '연수+거버넌스'로 이동

V 에듀테크·교육 현장 EDTECH IN KOREA

대전교육청: 4대 전략·16개 과제, 'AI교육 1번지'

11월 6일 대전교육청·충남대가 공동 개최한 'AI 미래교육 포럼'에서 4대 추진과제와 16개 실행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인프라(GPU 서버팜·미래교육시스템·데이터 거버넌스), 맞춤형 학습(AI 기초학력 책임제·**1인 1 AI 튜터**·개별화 학습 플랫폼·진로진학), 학교 AI 역량(교육과정·AI 리터러시·윤리·교원 전문성), 지역 연계(대덕특구·기업·AI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실행 장치는 교육감 직속 **컨트롤타워**(전략기획·기술플랫폼·데이터·성과관리·생태계 5기능)입니다. 예산·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관문은 집행입니다.

교사가 AI 대화를 관리하는 모델도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학생챗'은 교사가 학습 주제와 목표를 정하면 학생이 그 범위 안에서 AI와 대화하고, 교사는 학생별 대화를 확인해 개별 피드백을 보냅니다. 학습 지연·오개념은 유형별로 알림이 갑니다. 대화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쓰지 않고, 외부 AI 제공 기관에는 제로 데이터 리텐션(ZDR)을 적용합니다. **학생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교사에게 가시성을 주는 설계**입니다.

현장 실증의 숫자

+9.2점
프리윌린 스쿨플랫, 전북 9개교 236명(5~10월) 중 남원도통초 4학년 평균 72.4 → 81.6점

38% → 72%
이리모현초 5학년 정답률(5월 → 9월). 전국 3,641개 초·중·고 사용

153곳
2021~2025년 통폐합 학교(초 120·중 24·고 9).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1,863곳 → 2030년 2,026곳 추산

출처: 프리윌린·전자신문(11-03), 아이스크림에듀·교육부 자료(11-03).

통폐합이 만든 새 수요: '학교 없는 학습'

아이스크림에듀는 통폐합 학교 학생에게 학습기·콘텐츠·1:1 관리교사를 묶어 지원합니다. 학교가 사라진 지역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누가 책임지는가 — 이 질문이 지방 에듀테크의 가장 큰 시장이 됩니다. 학급 단위 판매에서 **지역 단위 학습 인프라**로 판매 단위가 커집니다.

콘텐츠 기업과 대화형 AI의 결합

위버스브레인과 NE능률은 AI 튜터 공급·맞춤형 에이전트 공동개발 MOU를 맺었습니다(11-02). 코드스위칭 TTS로 다국어 발화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기술이 40년 교재 자산과 결합합니다. **콘텐츠는 있고 대화가 없는 기업**이 가장 빠르게 AI 튜터를 붙이는 경로입니다.

4대 · 16개	3,641교	2,026곳	ZDR
대전교육청 AI교육 추진·실행과제	스쿨플랫 사용 초·중·고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추산	학생 대화의 제로 데이터 리텐션

판단 국내 에듀테크 도입의 세 관문은 예산, 교원의 시간,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세 관문을 한 번에 통과하는 제품은 '학생용 앱'이 아니라 '교사용 대시보드 + 학급 단위 라이선스 + 개인정보 처리 문서'입니다. 지방교육청이 실험장이고, 그 실험이 전국 표준이 되는 순서가 2027학년도의 실제 경쟁 구도입니다.

AI 튜터의 효과는 '설계'가 결정한다

2년 RCT는 학기당 1.3백분위, 대학 RCT는 -0.37SD — 접근성이 아니라 참여가 병목이다

VI 글로벌 에듀테크·실증 GLOBAL EDTECH EVIDENCE

연구·표본	설계	핵심 결과
Khanmigo **18개 중학교 · 2년** **(테네시)**	학군 단위 군집 무작위배정, 기존 보충수업 시간에 의무 배치	학기당 **+1.3 백분위**(연 0.06~0.08SD, 완전 참여 시 0.14SD). AI 없는 Khan Academy 연습 효과와 유사. 학생 96%가 최소 1회 사용했지만, 중앙값 기준 **연습일의 1/3**에만 메시지, 오답 세션의 **17%**에서만 도움 요청. 대부분 단답·추천 프롬프트 클릭.
교과 통합 AI 튜터 **2,379명 · 30개 강좌** **(미국 대형 공립대)**	섹션 단위 무작위배정, 동일 교과 내 비교	최종 성적 **-0.37SD**, LMS 참여 **-0.90SD**. 첫 세대(first-generation) 학생의 손실이 더 컸음. 기존 학습 활동을 대체하면서 성과를 만들지 못한 사례.
Google Guided Learning **300명+ (도쿄대)**	반나절 자율학습 RCT, 절반에 가이드 학습 제공	사전-사후 점수 +5.3%p(일반 웹) vs **+8.1%p**(가이드). 단일 학습 세션에서 1.5배 학습 이득.
NotebookLM 강의 **치과 인턴 (BMC Med Educ, 11-05)**	무작위 배정, 동일 교재로 AI 영상 vs 대면 강의	진단·생활치수 치료는 유의차 없음. 근흡수 문항은 **87.8% vs 83.0%**(p=0.029)로 AI 우위. 다만 자기보고 '주의 분산'은 **74.5% vs 38.3%**(p=0.003)로 AI 집단이 높았음.

읽는 법: 효과 크기보다 '대체 vs 보완'

네 연구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AI 튜터의 효과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기존 학습 활동을 대체했는지, 보완했는지**로 갈립니다. 의무 시간에 배치해 참여를 구조화한 Khanmigo는 작지만 양(+)의 효과를 냈고, 선택적으로 제공돼 기존 참여를 밀어낸 대학 튜터는 음(-)의 효과를 냈습니다. 반나절이라는 짧은 세션에서도 '질문을 유도하는' 가이드형 설계는 1.5배의 이득을 만들었습니다.

제품 사양으로 번역하면

① 답을 주지 않는 코칭 모드가 기본값
② 오답·정지 신호에서 먼저 말을 거는 개입 설계
③ 교사·학부모에게 참여 로그 제공
④ '대체'가 아니라 '추가 30분'을 만드는 시간 설계
⑤ 효과 측정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참여율·질문의 깊이

연구의 한계: 무엇을 아직 모르는가

Khanmigo는 18개 중학교·보충수업 시간이라는 특정 조건, 대학 튜터 RCT는 단일 캠퍼스·선택 제공, NotebookLM은 단일 과목·단기 측정입니다. 장기 기억 정착과 전이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적용: 세 제품의 공통 분모

대전의 1인 1 AI 튜터, 프리윌린의 서술형 채점, 아이스크림의 학생챗은 모두 '교사의 가시성'을 제품 사양으로 넣었습니다. 학교 파일럿의 1차 지표를 시험 점수가 아니라 참여 로그·교사 개입 빈도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사점 2026년의 에듀테크는 'AI를 넣었다'로 팔리지 않습니다. 학교는 참여 로그와 효과 크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제품은 예산 심의에서 탈락합니다. **측정 설계가 곧 영업 사양**입니다.

리더 리스크가 지수 리스크가 될 때

엔비디아 이사회의 독립 조사, 11월 17일 실적과 18일 의회 브리핑 — 기업 지배구조가 공급망 안보와 만나는 지점

VII 신뢰·보안·지정학 TRUST, SECURITY & GEOPOLITICS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8일 엔비디아 이사회는 CEO 젠슨 황이 '외국 정보 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를 두고 독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독립 사외이사 위원회와 외부 법률자문이 맡고, 회사는 "국가안보나 엔비디아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이유는 없지만 모든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직원 메시지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싱가포르 Megaspeed의 앨리스 황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된 것으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1월 9일 엔비디아는 4.2% 하락한 **178.65달러**로 4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4조5,000억 달러 기업의 주가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위원장 3인은 11월 18일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했고(실적 발표는 11월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증언을 요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CEO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 겹의 리스크

1. 키퍼슨 리스크 — 30년간 회사를 이끈 창업자에 대한 의존. 승계 계획의 부재가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나타납니다.

2. 지배구조 리스크 — 이사회 조사의 범위와 속도. 실적 발표 직전에 조사가 겹친 시점이 가장 불리합니다.

3. 수출통제 리스크 — 중국 접근 경로에 대한 의회·행정부의 재점검. 칩 수출 규제가 다시 조여질 명분이 생깁니다.

세 리스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확인되면 나머지 둘의 확률이 함께 올라갑니다.

관세의 정치경제: AI는 자유무역을 다시 불렀다

이코노미스트 계산에 따르면 AI 관련재 교역은 올해 1~8월 55% 늘어 세계 수입의 약 1/4(2023년 15%)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AI 관련재 수입은 69% 증가했고, 그 외 수입은 10% 감소했습니다. 컴퓨팅 하드웨어 수입의 97%가 관세 예외입니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는 데이터센터 건설비를 2030년까지 1,300억 달러 더하게 하고(CSIS), 반도체 전면 25% 관세는 3,600억 달러를 더할 수 있습니다. **AI는 관세의 예외이면서 관세의 재료**입니다.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단일 공급자·단일 리더·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을 재고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에는 공급 중단 조항과 대체 공급선을, 투자 논리에는 '키퍼슨 할인'을, 보안 정책에는 임원 대상 표적 공격 시나리오를 넣어야 합니다. AI 공급망의 신뢰는 이제 기술 검증과 신원 검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11.17 3분기 실적
가이던스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범위·승계 언급. 컨센서스가 흔들리면 공급망 전체의 할인율이 올라간다.

11.18 의회 브리핑
하원 공화당 위원장 3인의 비공개 브리핑 요청. 중국 접근 경로 재점검이 수출통제 강화의 명분이 된다.

2027년 상반기
미국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인허가·전력계약 조건이 바뀌는 첫 회계연도. 프로젝트 일정이 자본비용이 된다.

판단 기업 리스크가 국가안보 리스크로 번지면, 할인율은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매겨집니다. 한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에는 반사이익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생깁니다.

지표 팩트테이블

이번 호에 인용된 수치를 한 장에 — 값, 변화, 해석, 출처

VIII 핵심 지표 KEY INDICATORS

지표	값	변화	해석	출처
나스닥 종합	25,253.14	+2.74% (11-09)	7/30 이후 최대 일간 상승	Morningstar
S&P 500 / 다우	7,549.94 / 52,389.75	+2.35% / +2.15%	4/8 이후 최대 일간 상승	Business Times
VIX	19.92	-22.31%	공포지수 급락	CNN Chile
미 10년물	4.86%	-13bp (주간)	유가 급락이 물가 기대 진정	BlackRock
브렌트 / WTI	$97 / $87	-17% (주간) / -5% (당일)	이란 타격 가능성 축소	BlackRock·CoinDesk
금 / 비트코인	$4,148 / $74,800	+1.8% / -1.1%	BTC 5주 연속 하락(-13%)	CoinDesk
원/달러	1,347.1	-9.5원	수출 네고·당국 미세조정	연합뉴스
코스피	5,018.85	-0.81%	2/2 이후 최저, 10월말 대비 -12.42%	연합뉴스·AJP
외국인 코스피	-6,930억 원	7거래일 연속	누적 13.5조 원	뉴스1
미국 10월 고용	+16만5,000명	실업률 4.1%	예상 6만5,000명의 2배	BLS
DRAM 3분기 매출	—	+369% YoY	삼성 점유율 38%	Counterpoint
AMD 3분기 매출	134억 달러	+45%	데이터센터 85억(+97%)	AMD
TSMC 첨단 패키징 설비투자	약 280억 달러	2026년	매출이 전통 패키징 추월	Yole·Reuters
국내 정기공채 계획	55%	수시채용만	300인 미만 74%	경총
AI 역량 공식 평가	20%	기업 200곳	취준생 인식 77%	한경협
Khanmigo 효과	+1.3 백분위	학기당	18개 중학교 2년 RCT	EdWorkingPaper 26-1551

유의 주가는 2026년 11월 9일(현지) 종가 기준이며, 주간 변화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입니다. 코스피의 '10월말 대비 -12.42%'는 AJP 집계 기준입니다. 기업 실적·펀딩 금액은 발표 시점 값으로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027년의 원가는 '허가'에서 결정된다

다섯 개의 전략 명제와 세 개의 실행 — 창업가·경영진·교육기관을 위한 권고

IX 전략적 시사점 STRATEGIC TAKEAWAYS

1. 병목은 '사회적 허가'로 이동했다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학교의 개인정보 심의, 지방의회의 반대는 비용이 아니라 **일정**을 바꿉니다. 허가를 빨리 얻는 설계(전력·용수·소음·지역고용 패키지)가 곧 자본비용입니다.

2. 메모리·패키징이 가격 결정권을 쥔다

5년 계약이 생산의 60~70%를 잠그면 현물 가격은 변동성이 줄고, 소규모 구매자는 프리미엄을 냅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조달 계획을 18개월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3. 자본은 '운영 증거'에 값을 매긴다

매출 런레이트, 고객 유지, 검증 통과율이 모델 벤치마크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초기 창업가는 '사용 로그 90일'을 가장 싼 증거로 설계해야 합니다.

4. 초급 일자리는 '훈련'이 아니라 '검증'으로 대체된다

기업은 경험을 요구하고, 청년은 경험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수행 기록의 표준**입니다. 채용·평가·인증이 하나의 제품이 됩니다.

5. AI 튜터의 성과는 참여 설계에서 나온다

접근성은 이미 무료입니다. 차이는 '언제, 무엇으로, 얼마나' 대화하게 만드는가입니다. 학교 판매의 언어를 효과 크기·참여율로 바꿔야 합니다.

세 가지 실행 (90일)

① 주요 구매·공급 계약에 대체 공급선·중단 조항을 명문화
② 파일럿마다 참여 로그·원가 절감·검증 통과율 3종 지표를 계약서에 넣기
③ 지역(교육청·지자체) 단위 파일럿으로 '허가 비용'을 먼저 측정하기

참고자료 (선별)

CNBC·Morningstar·Business Times·Reuters(11-09 시장) · 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 Weekly Commentary(11-09) · BLS Employment Situation(10월, 11-06) · 연합뉴스·뉴스1·AJP(11-09 국내시장) · Counterpoint Research(DRAM 3Q) · The Information·Reuters·Taipei Times(TSMC 3D DRAM) · VLSI Research(11-08) · NVIDIA Korea Blog(11-09)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11-10) · 글로벌인재포럼 2026(11-05) · 교육플러스(대전교육청, 11-07) · 전자신문(프리윌린, 11-03) · 디지털데일리(아이스크림미디어, 11-02) · 디지털타임스(아이스크림에듀, 11-03) · EdWorkingPaper 26-1551·26-1598 · Google for Education Blog(11-03) · BMC Medical Education(11-05) · The Economist(11-06·11-02) · CSIS · AI Funding Roundup(11-09)

동시 발행: 트랙 2 학술 인사이트
에이전트 평가·조직 민첩성·AI 튜터 실증 9편 (CONDERI-AR-2026-11-10)

동시 발행: 포커스 칼럼 4호
'허가의 경제학: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은 전기가 아니다'

동시 발행: 글로벌 옴니버스 2호
6대 매체 교차 분석 + 전문 차트 5종 (CONDERI-GO-2026-11-10)

고지 본 리포트는 공개자료 기반 산업 분석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각 출처의 발행 시점 값으로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성장률은 서로 다른 기준(매출·수입·설비투자)이며 표에 단위를 명시했습니다.